

## 풍농(豐農)의 원리: <세경본풀이> 서사의 신화적 의미

정진희\*

1. 문제제기
2. 자청비·문도령 서사의 신화적 의미
3. 자청비·정수남 서사의 신화적 의미
4. 풍농(豐農)의 원리와 자청비의 역할
5. 맺음말

### <국문초록>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에서 구연되는 제주도 서사무가 <세경본풀이>의 서사는 자청비와 문도령, 자청비와 정수남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다. 이러한 핵심 서사는 일견 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유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농경 풍요의 원리와 그것을 위한 전범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례와 밀접하게 조응된다.

먼저, 자청비와 문도령의 애정담은 지상 존재인 자청비가 천상 존재인 문도령과 결연하여 천상의 穀種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 풍요의 근원은 천상에 있으며, 천상에서 유래한 곡종은 지상의 풍요를 보장한다는 신화적 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청비와 정수남 이야기는 정수남으로 대표되는 목축이 농경의 풍요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준다. 목축은 대지의 점유라는 측면에서 농경과 대립적이어서 농경의 풍요에 방해가 되지만, 역으로 대지가 아닌 천상에서 풍요를 탐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애정담에서 천상의 풍요를 지상에 가져오는 인물

---

\*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강의교수.

로 그려지며, 겁탈하려는 정수남을 죽였다가 되살려 세경신으로 좌정시키는 이야기에서는 풍요를 방해하는 목축을 농경을 위한 것으로 재배치하는 인물로 기능한다. 요컨대 <세경본풀이>는 천상의 풍요를 지상에 가져왔을 뿐 아니라, 농경의 풍요를 방해하는 지상의 목축을 도리어 농경의 풍요를 위한 것으로 재배치한 인물인 풍요의 신 자청비에 대한 신화이다. <세경본풀이>의 서사와 의례적 기능의 조응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핵심어: 신화, 세경본풀이, 애정담, 자청비, 풍농 원리, 천상(天上), 곡종(穀種), 농경, 목축, 전범(典範)

## 1. 문제제기

<세경본풀이>는 ‘자청비’라는 한 여인이 ‘세경’이라는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내력을 풀이한 제주도의 서사무가이다. <세경본풀이>는 서사가 풍부하기로 이름난 제주도 서사무가 중에서도 특히 긴 편에 속하나, 주인공 자청비를 중심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줄거리로 추려진다.<sup>1)</sup>

가치치성 끝에 태어나 귀하게 자란 자청비는 난생 처음으로 집 밖에 나가 빨래를 하다가 글공부하러 가는 문도령을 만나고, 男裝變服하여 문도령과 동문수학한다. 문도령이 장가가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함께 길을 나선 자청비는 도중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부모 몰래 문도령을 집으로 들여 인연을 맺는다. 나중을 기약하고 홀로 떠나간 문도령은 돌아올 줄 모르는데, 하인 정수남은 문도령을 보았다고 자청비를 속이고 산으로 꺾여내 탐하러 한다.

1) 참조한 이본들은 다음과 같다. 상세 서지는 참고문헌으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이본 명칭과 수록 문헌만을 적는다. <박봉춘 심방 구연본>(『조선무속의 연구』), <이달춘 심방 구연본>(『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강을생 심방 구연본>(『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안사인 심방 구연본>(『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고대중 심방 구연본>(『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한행수 심방 구연본>(『구비문학대계』), <이용옥 심방 구연본>(『이용옥 심방 <본풀이>』), <양창보 심방 구연본>(『양창보 심방 본풀이』). 이하에서 각 이본을 인용할 때에는 원문을 표준어로 의역하고, 이본 명칭과 수록 문헌의 쪽수만을 각주로 적는다.

기지를 발휘하여 정수남을 죽이고 집으로 돌아온 자청비는 하인을 살려내라는 부모님의 꾸중에서 천천꽃밭 꽃을 구해 정수남을 살려내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딸이라 하여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만다. 자청비는 우여곡절 끝에 천상에 올라가 시부모의 시험을 거친 후 드디어 문도령의 아내로 살게 된다. 그러나 자청비는 남편 문도령이 서천꽃밭 따님아기와 사느라 자신을 돌아보지 않자, 천상의 곡물 씨앗을 받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 세경땅 세경으로 좌정한다.

위의 줄거리에서 보듯 <세경본풀이>의 서사는 자청비와 문도령의 애정담이 중추를 이룬다.<sup>3)</sup> 생애 첫 외출에서 문도령을 만난 자청비가, 온갖 시련 끝에 천상에 올라가 문도령의 아내가 되어 애정을 성취하기까지의 과정이 <세경본풀이> 서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느 본풀이라면 이러한 애정의 완수가 신격으로의 좌정으로 이어질 터인데,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의 좌정은 애정의 성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정수남을 살릴 꽃을 구하느라고 남장을 하여 그 곳의 사위가 된 처지다. 이런 자청비가 문도령의 아내로 살게 되자 문도령이 그 곳의 사위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문도령은 두 아내와 각각 보름씩 살기로 하고는 서천꽃밭에 가 돌아올 줄 모른다. 자청비는 이런 남편에게 실망하여 남편을 떠나<sup>4)</sup> 세경으로 좌정한다. 자청비가 세경으로 좌정한 것은 애정의 성공에 따른 결실이 아니라, 애정의 파탄에 가까워 보이는 문제적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이다.

본풀이 서사의 중심인 애정이 결실을 맺어 ‘세경’이라는 직능을 맡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세경본풀이>의 애정담은 ‘세경 자청비’의 당위성

- 2) <강을생 심방 구연본>에서는 정수남을 살려내는 삽화가 자청비가 오곡씨를 받고 지상에 내려온 이후에 등장한다.
- 3) 조동일은 제주도 서사무가를 구비서사시로 보고 서사의 주제에 따라 분류한 바 있는데, <세경본풀이>를 ‘애정서사시’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였다.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105~109면 참조.
- 4) 예외적으로 <안사인 심방 구연본>은 자청비가 남편과 함께 지상에 내려왔다고 하며, <이달춘 심방 구연본>은 문도령이 뒤늦게 자청비를 뒤쫓아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편의 이본에서도, 문도령은 다른 아내와 함께 살면서 돌아오기로 한 자청비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을 설명하는 신화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세경본풀이>를 애정서사시로 분류한 조동일은 “신앙이 약화되고 문학에 대한 요구는 더 커”졌던 시대적 상황에서 <세경본풀이>가 애정서사시로 새롭게 창작되었다고 보고 있는데,<sup>5)</sup> 이는 <세경본풀이>의 애정담이 신앙에 복무하는 신화가 아니라 청중의 흥미를 충족하는 문학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세경본풀이>가 의례의 현장에서 신의 내력을 풀이하기 위해 구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세경본풀이>의 주요 서사가 세경의 직능과 유리되어 있다는 견해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설령 <세경본풀이>의 애정담이 구비문학의 유동성과 적응성에 따라 형성된 후대적 요소라 하더라도,<sup>6)</sup> 그것이 ‘세경’이라는 신의 ‘근본’을 ‘풀어내’는 <세경본풀이>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의례의 현장에서 공유되는 신화적 관념인 ‘세경 자청비’의 당위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세경 자청비’의 의례적 직능과 <세경본풀이> 서사의 상관 관계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은 ‘세경 자청비’가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에서 제의의 대상이 되며 <세경본풀이>는 이러한 제의에서 세경 자청비의 근본을 풀어내는 신화라는 데 주목하여 <세경본풀이>의 서사는 ‘농경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으며, <세경본풀이>는 자청비가 구현하는 농경 원리를 통해 농경신 세경의 직능을 뒷받침하는 신화로 파악해 왔다.<sup>7)</sup> 그러나, <세경본풀이>의 서사가 함축하고 있는 농경 원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각설이 부분하다. <세경본풀이>에서 주로 남녀의 사랑이 이야기되는 것에 주목하여 이것이 암수 결합에 의한 곡물의 수확이라는 농경 원리를 드러낸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sup>8)</sup> 본풀이 서사에 등장하는 죽음과 재생의 구조에

5)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109면.

6) 최원오,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에 나타난 남녀애정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22, 2002, 7~8면 참조.

7)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 민속학회, 1993; 강진욱, 『무속 농경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구비문학연구』 20, 2005;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45, 2009; 오세정,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남성 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2010 등 참조.

8) 이수자, 위의 글, 284면 참조.

주목하여 이는 열매가 죽어 땅 속에 묻힘으로써 다시 살아나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다는 농경의 원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sup>9)</sup> 자청비가 문도령과 결별하고 세경신으로 좌정한다는 내용에 주목한 최근의 한 연구는, 이를 남성과의 결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생적인 대지의 생산력을 의미한다고 보아 <세경본풀이>에는 ‘自動地生’의 농경 원리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sup>10)</sup>

나름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들은 <세경본풀이>의 일부 서사에 국한되는 해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컨대 <세경본풀이>가 암수 결합에 의한 곡물 수확의 농경 원리를 보여준다는 견해는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문도령을 ‘떠나’ 농경의 신으로 좌정했다는 본풀이 서사의 의미를 해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세경본풀이>가 죽음과 재생의 농경 원리를 보여준다는 견해나 자동지생의 농경 원리를 보여준다는 견해 또한, 자청비가 죽은 생명이 되살리는 삼화나 문도령과의 결별 화소에 천착함으로써 정작 <세경본풀이> 서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애정담이 ‘세경 자청비’라는 직능에 기여하는 바는 명쾌히 해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1)</sup>

다시 <세경본풀이>의 줄거리로 돌아가 보자. <세경본풀이> 서사의 핵심은 무엇보다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연 많은 애정담이다. 또 하나, <세경본풀이> 서사에서 적지 않은 분량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청비와 정수남의 관계이다. 정수남은 문도령에 대한 자청비의 마음을 빌미로 자청비를 꼬여내 겁탈하려다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자청비가 구해온 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러한 주요 서사의 주인공들인 문도령과 자청비, 정수남은 모두 신으로 좌정한다. 이본에 따라 구체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나, 보통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은 하세경으로 좌정하게 된다. 자청비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의 주인공들이 모두 세경신으로 좌정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세경본풀이> 서사를 ‘세경’이라는 농경신의 직능과 관련지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자청비와 문도령의 관계, 자청비와 정수남

9) 강진욱, 앞의 글, 330~335면 참조.

10) 오세정, 앞의 글, 279~284면 참조.

11)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4장에서 상술한다.

의 관계 모두를 일관된 논리 하에서 아울러 설명해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다.

문도령에 대한 자청비의 애정, 문도령을 회구하는 자청비의 여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을 이루기까지의 곡진한 사연에도 불구하고 자청비가 시택이나 남편을 떠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며, 또 이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도령이 종종 상세경이라는 세경신으로 좌정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인가? 자청비를 겁탈하려 했던 정수남이 자청비에 의해 다시 살아나고 심지어 신직을 받기까지 하는 것은 또 어떤 신화적 의미를 지니는가? <세경본풀이>의 서사와 주인공들의 세경이라는 직능 사이의 관계를 밝히려면, 적어도 이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선행 논의들의 한계는 바로 이 지점, 즉 <세경본풀이> 서사의 일부에만 착목함으로써 <세경본풀이> 서사를 관통하는 신화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미흡했다는 점에서 찾아지는데, 이러한 문제는 <세경본풀이>를 세경신의 신화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다.

선행 논의들의 또다른 문제는, <세경본풀이>가 제주도 특유의 ‘세경’이라는 신격에 대한 본풀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다. <세경본풀이>를 우리 민족 고유의 농경기원 신화로 보거나<sup>12)</sup> 무속적 생명원리에 기반한 농경 원리가 투영된 신화로 보는<sup>13)</sup> 입장에는, <세경본풀이>를 둘러싼 특수한 컨텍스트, 즉 ‘제주도’라는 특수한 공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주몽 신화>의 유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남성과 관계맺는다는 특이점을 지적하여 자청비가 지니는 농경신으로서의 특수성을 지적한 논의<sup>14)</sup> 역시, 이러한 특징이 ‘제주도’라는 본풀이 전승 공간(혹은 집단)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세경본풀이>가 제주도에서만 전승되는 신화라면, <세경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는 그것을 전승하는 제주 문화의 특수성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풀이 텍스트에만 천착하여 일반적 원리를 찾아내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은,

12) 이수자, 앞의 글, 286~288면 참조.

13) 강진옥, 앞의 글 및 김재용, 앞의 글 참조.

14) 오세정, 앞의 글 참조.

‘제주도’라는 전승의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세경본풀이> 서사에 접근할 때 조금이나마 감소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세경본풀이>의 전승 맥락을 고려하면서, 앞서 제시한 <세경본풀이>의 주요 서사에서 해명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보고자 한다. 특정 이본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여러 이본을 세밀하게 살핌으로써 본풀이 텍스트에 구현된 자청비와 문도령, 자청비와 정수남 서사의 실재를 면밀히 드러내고, 전승의 맥락을 고려하여 그 신화적 의미를 읽어내려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세경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신화로서의 기능이 보다 분명하게 究明될 수 있을 것이다.

## 2. 자청비·문도령 서사의 신화적 의미

### (1) 애정담의 표층과 심층

반복하던대 <세경본풀이> 서사의 중추는 자청비와 문도령의 애정담이다. 두 사람의 결연으로 완성되곤 하는 술한 고전 서사의 애정담과는 다르게, <세경본풀이>에서의 애정담은 결연을 거쳐 또다른 결말에 이른다. 이러한 서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청비와 문도령의 귀속 집단이 서로 이질적이라는 점이다. 자청비는 비록 부유한 집안의 귀한 딸이기는 하나 지상의 존재인 반면, 문도령은 글공부를 배우러 지상에 내려왔을지언정 천상의 존재이다. 그리고 <세경본풀이>에서 천상은 옥황상제가 거주하고 지상의 인간들이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sup>15)</sup> 지상과는 구분되는 초월적 공간이다.<sup>16)</sup> 지상의 자청비가 천상의 문도령을 처음 만났을 때, 자청비의 반응은 문도령에 대해 ‘탐심’을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청비는 하녀 정하님의 ‘하얀 손’이

15)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자청비는 천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천상 인물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16) 자청비와 문도령의 귀속 집단의 성격을 공간적 차원에서 구분하는 시각은 김화경,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 8권3호, 일지사, 1982 및 강진옥, 앞의 글 참조.

부러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深閨를 벗어나 연못가에 나올 정도로<sup>17)</sup> ‘더 나은 것’에 대한 선망이 강한 인물인데, 이제 천상의 자제 문도령을 만나게 되자 그를 탐낸다. 이러한 ‘탐심’이 명확히 드러나는 <이용옥 심방 구연본>을 보자.

(…)

“어디로 가는 도련님이십니까?”

“나는 하늘 옥황 문왕성 문도령이요. 인간 세상에 거무선생 있다 하여 거무선생에게 활공부 글공부 배우러 가는 길에, 목이 말라 여기로 물을 찾아 들었소이다.”

(…) 자청비가(…) 문도령 얼굴을 보니, 천하도령이니 탐이 났구나.<sup>18)</sup>

이렇게 해서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자청도령’으로서 문도령과 함께 떠나는데, 동문수학하던 문도령이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미련없이 함께 길을 나선다. 여기에서, 자청비의 회구 대상은 공부가 아니라 문도령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문도령은 자청비의 그런 마음은커녕 자청도령이 자청비인 줄도 모른 채, 천상 부모의 명에 따라 혼인을 위해 천상으로 돌아가려 한다. 자청도령이 스스로 여자임을 밝힌 후에야<sup>19)</sup> 뒤늦게 문도령은 자청비를 쫓아가지만, 문도령은 결국 자청비를 남겨둔 채 홀로 천상으로 향한다.<sup>20)</sup>

17) 자청비는 정하님의 하얀 손이 부러워 어찌하여 손이 그렇게 고운지 묻는다. 정하님은 빨래를 하면 손이 하얘진다고 대답하고, 이에 자청비는 집안의 빨랫감을 모아다가 빨래를 하러 못가에 나간다.

18) <이용옥 심방 구연본>, 245면.

19) 자청도령은 돌아가는 길에 문도령과 함께 목욕이나 하고 가자고 제안한다. 자청도령은 뒷물에서, 문도령은 아랫물에서 목욕을 하는데, 자청도령은 나뭇잎에 글을 써서 아랫물로 흘려 보낸다. 자신이 여자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문도령을 책망하는 내용에, 문도령은 그제서야 자청도령이 자청비였음을 깨닫는다.

20) 대부분의 이본은 자청비와 문도령이 동침하여 인연을 맺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달춘 심방 구연본>과 <고대중 심방 구연본>은 동침 장면이 없다. <이달춘 심방 구연본>에서는 자청비가 ‘부모님의 허락’을 요구하며 동침을 거부하고, <고대중 심방 구연본>에서는 자청비가 바느질하던 바늘로 문도령의 손가락을 찌르는 바람에 문도령이 날땀내를 참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어느 이본이든 자청비의 부모는 문도령과 자청비의 결연을 인지하지 못하며,

이제 지상의 존재인 자청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늘에 간 문도령이 다시 자신을 찾기를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 문도령을 보았노라는 정수남의 말에 스스로 문도령을 찾아가 보지만 정수남의 죽음과 재생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 휘말렸을 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채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한다.<sup>21)</sup> 다행히 몸을 의탁할 곳을 마련하여 문도령과 재회할 기회도 얻지만,<sup>22)</sup> 자청비는 자신을 찾아온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그만 문도령이 문 밖에서 다시 돌아가버리는 지경을 맞는다. 문도령은, 날땃내의 不淨을 견디지 못하여 천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sup>23)</sup> 자청비와 문도령의 재회 실패는 자청비와 문도령이 서로 다른 세계의 존재임을, 또 그것이 결합 실패의 원인임을 보여준다. 요컨대, 천상의 존재인 문도령에 대한 자청비의 희구는 자청비가 지상의 존재인 까닭에 쉽게 충족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실패 뒤에, 자청비는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문도령을 위해 물을 길러 내려온 천상의 시녀들을 도와주고 그 보답으로 하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고대중 심방 구연본>은 문도령이 홀로 천상으로 향할 때 남겨 준 박씨에서 자란 줄을 타고 자청비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시녀’이든 ‘박줄’이든 모두 문도령이 지상에 보내거나 남긴 것이니 자청비의 昇天은 문도령을 매개로 가능했던 것이다. 문도령의 서사 내적 기능은 지상의 존재인 자청비가 천상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매개자였음이 명확해지는 부분이다.

천상에 올라온 자청비와 재회한 문도령은 자청비를 자신의 방으로 끌어

문도령은 성혼하지 않은 채 홀로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21) 정수남에게 속아 숲속에서 겁탈당할 지경에 처한 자청비는 움막을 짓고 불을 피우자고 하며 하룻밤을 무사히 넘긴다. 머릿니를 잡아주마고 정수남을 무릎에 누인 자청비는 정수남의 귀에 막대를 찔러넣어 죽이는데, 집으로 돌아와 사정을 고하니 집안 일을 할 하인을 죽였다고 집에서 쫓겨난다. 남북하여 서천꽃밭으로 간 자청비는 서천꽃밭의 골치덩이인 부엉이를 잡아 주고 그곳의 사위가 되어 꽃을 따내는 데 성공한다. 서천꽃밭 꽃으로 정수남을 되살리고 집으로 돌아오나, 이번에는 사람을 죽였다가 살리는 잘난 딸이라 하여 집에서 쫓겨난다.
- 22) 자청비는 홀로 사는 할머니의 집에 수양딸로 들었다가 문도령의 혼사에 쓸 비단을 짜게 되는데, 비단을 본 문도령은 자청비를 찾아온다. <고대중 심방 구연본>에서는 비단 화소 대신, 문도령이 우연히 할머니의 집에 왔다가 바느질하는 자청비를 보았다고 한다.
- 23) 날땃내 화소가 없는 이본은 <강을생 심방 구연본>이다. 여기에서는 바늘로 손가락을 찔린 문도령이, 손가락이 아파 하늘로 돌아가 버렸다고 서술하고 있다.

들여 함께 지낸다. 그러나 단순한 남녀의 ‘同食同寢’은 이미 지상의 자청비의 방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인바, 자청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자청비가 원하는 것은 ‘아내’이자 ‘며느리’라는 지위였던 것이다. 자청비는 문도령의 약혼자인 ‘서수왕 따님아기’가 아닌 바로 자신이 문도령의 아내로서 더 낫다는 것을 문도령의 입을 통해 강조하고,<sup>24)</sup> 자격 시험을 거쳐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는다.<sup>25)</sup> 예외적으로 <박봉춘 심방 구연본>에는 며느리 자격 시험 삽화가 없는데, 여기에서도 자청비와 문도령의 ‘동식동침’과 ‘부모의 허락에 의한 부부 되기’가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구분된다는 점은 다른 이본들과 다르지 않다. 요컨대, 자청비는 천상에 올라가 며느리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음으로써 비로소 문도령과의 혼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듯 첫 외출에서 처음 만난 문도령에 대한 자청비의 희구는 천상의 며느리가 됨으로써 일단락된다. 지상의 존재였던 자청비가, 문도령을 매개로 천상 가족 체계의 구성원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본풀이나 신화에서 지상의 여성과 천상의 남성이 결연하는 삽화와 <세경본풀이>의 그것을 대조적으로 견주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제주도 본풀이 <천지왕본풀이> 및 문헌 신화 <단군 신화>를 보자. 여기에서 지상의 존재인 여성은 수동적 입장에서 천상 남성의 선택을 받고 성스러운 아기를 낳을 뿐, 스스로 천상의 존재가 되지는 못한다. 천상의 남성이 결국 홀로 천상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은, 지상과 천상 사이의 근본적 경계가 신화 전반에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청비는 어떠한가? 자청비는 ‘문도령’이라는 천상의 존재를 추구한 끝에 결국은 스스로 천상의 존재가 된다.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 형제의 어머니, <단군 신화>의 웅녀가 친손을 출산한 후에도 여전히 지상의 존재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데 비해, 자청비는 자신이 직접 천상에 올라가 ‘며느리’로 인정받음으로써 천상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

24) 자청비는 문도령을 시켜 부모와 수수께끼 문답을 하게 한다. 목은 장과 새 장 중에 어떤 것이 맛있는가, 목은 옷과 새 옷 중에 어떤 옷이 좋은가 등의 질문에, 부모는 오래된 것이 더 낫다는 대답을 한다. 이에 문도령은, 그렇다면 약혼자(새 여인)가 아닌 자청비(목은 여인)가 더 나으니 자청비에게 장가가겠노라고 말한다.

25) 수수께끼 문답, 옷 짓기, 칼선다리 건너기 등의 시험이 이본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제시된다.

이런 점에 주목하면, 문도령을 희구하는 자청비의 애정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지상적 존재의 선망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청비의 문도령에 대한 애정은 천상적 존재에 대한 선망이었고, 문도령을 찾아 떠났던 자청비의 여정은 천상적 존재에 대한 추구와 탐색이었던 것이다. 그토록 원했던 문도령이었건만 자청비가 문도령을 서천 꽃밭 따님아기에게 보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면 무리없이 이해된다. 이제 스스로 천상적 존재가 된 자청비는, 문도령 자체에 집착하거나 연연할 필요가 없다. 문도령의 약혼자 ‘서수왕 따님아기’까지 사라진 마당에,<sup>26)</sup> 문도령의 ‘분처’이자 시부모의 ‘큰며느리’라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청비의 탐색과 여정을 추동했던 문도령에 대한 애정의 본질은, 이성애에 대한 ‘낭만적 사랑’으로 포장된 ‘천상에 대한 동경과 추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기에, 자청비의 고난에 찬 여정을 지상의 인물이 천상의 인물이 되기 위한 일종의 입사 의식이었다고 보는 견해는<sup>27)</sup> 귀기울일 만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천상 존재와의 혼인에 성공하여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지상의 존재라는 자청비의 본질적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양창보 심방 구연본>을 보자.

(자청비가 옥황의 변란을 막은 후:필자) 옥황상제님이 명을 내리기를,  
 “자청비는 옥황 사람이 아니고 지국성 사람이니, 지국성으로 내려가라.”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뭘 가지고 가겠느냐?”  
 “땅 한 쪽 물 한 쪽만 내게 나눠주면 지국성에 내려가리이다.”  
 “그리 하라.”

<양창보 심방 구연본>에서도 자청비가 천상을 떠나는 직접적 계기는 문도령의 배신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은 자청비의 하강이 이미 예정된 것

26) 파혼을 당한 문도령의 약혼자 서수왕 따님아기는 자살을 택한다.

27) 길태숙, 『<구령당당신선비>, <세경본풀이>, <밭매기노래>에 나타난 ‘남편찾기’와 ‘결합’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16, 열상고전연구회, 2002 참조.

이웃음을 보여준다. 자청비는 ‘옥황’, 즉 천상의 사람이 아니므로 ‘지국성’(지상)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청비가 천상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사실이 천상 존재로서의 질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자청비의 천상 지위 획득은, 지상 인물인 자청비가 천상 인물의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천상과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뜻할 뿐이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특수하고 배타적인 천상과 관계맺게 된 지상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천상 인물의 아내이자 며느리가 된 후에도 자청비의 지상적 존재로서의 본질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다음의 <이달춘 심방 구연본>에서도 엿보인다. 여기에서 자청비는 천상의 며느리로 인정받은 후 지상으로 내려와 살림을 산다.<sup>28)</sup> 천상의 며느리라는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지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까닭은, 자청비가 여전히 지상의 존재였기 때문일 터이다.

자청비는 시부모에게 칭찬을 받으며 편안히 살다가, 한 해쯤 지난 후 시부모에게 말을 한다.

“저는 이제 인간에 내려가 살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겠느냐?”

“물명주를 짜면서 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여라.”

자청비는 시부모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문도령과 함께 인간으로 내려온다.<sup>29)</sup>

<세경본풀이> 서사의 주축인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는 단순한 애정담이 아니다. 선남선녀의 애정담이라는 <세경본풀이>의 표면적 서사 뒤에는, 천상에 대한 탐색과 획득이라는 심층 서사가 자리하고 있다. 표면적 탐색의 대상은 문도령이지만, 문도령을 통해 자청비가 실질적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천상의 지위다. 그리고 자청비가 획득한 천상의 지위는 지상 존재

28) <강을생 심방 구연본>에서도 맥락상 자청비와 문도령의 살림살이는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남편의 배신을 시부모에게 고하기 위해 자청비가 옥황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볼 것.

29) <이달춘 심방 구연본>, 258면.

의 천상 존재로서의 질적 전환이 아니라, ‘지상 존재의 천상과 관계 맺기’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읽힌다.

## (2) ‘별거’의 신화적 의미

우여곡절 끝에 혼인에 이른 자청비와 문도령의 삶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구비 설화의 관습적 행로를 벗어난다. 자청비와 문도령이 함께 곡종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안사인 심방 구연본>의 예외적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두 사람의 애정 전선은 순탄하지가 않다. 대부분의 이본은 서천꽃밭 따님이기 때문에 자청비에게 소홀해진 문도령의 모습을 전한다. 이러한 문도령의 모습을 확인한 자청비의 대처가 흥미로운데, 자청비는 정인의 애정을 잃고 절망하는 대신, 문도령 없이 홀로서기를 택한다. <고대중 심방 구연본>을 보자.

자청비가 아버님, 어머님에게 들어가,  
“저는 세상으로 내려가겠나이다.”  
“무슨 일이냐?”  
“고대광실 높은 집이 저를 데리고 누우리까? 남전복답 너른 발이 저를 데리고 누우리까?”  
“설운얘기야, 땅 한 쪽을 갖겠느냐, 물 한 쪽을 갖겠느냐?”  
“땅도 말고 물도 마오이다. 오곡 씨나 주소서.”  
“그럼 그리하거라. 창고에 가서 네가 가져 가거라.”<sup>30)</sup>

자신을 데리고 누울 남편이 없는 시댁에 머무를 뜻이 없었던 자청비는 남편을 떠나 홀로 지상으로 내려갈 것을 선언하고, 그 대신 시부모에게서 오곡 씨를 얻는다. 이미 지상에서 살림을 차렸던 <이달춘 심방 구연본>의 자청비는 어떠한가? 남편의 배신을 알고 난 후, 자청비는 천상에 올라가 문도령과 함께 살 수 없음을 선언하고 시아버지로부터 오곡을 얻어 지상으로

30) <고대중 심방 구연본>, 189면.

다시 내려간다.

“저는 정 없는 살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가 살 도리를 닦아 주소서.”

문선왕이 말을 하되,

“아이고, 설운 내 며느리야! 오곡 씨를 내려 줄 터이니 씨나 뿌려 얻어먹거라. 어서 내려가라.”<sup>31)</sup>

여기에서 자청비의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문도령 집안의 며느리를 포기했다는 의미”이며, “문도령과도 결별을 의미하는 것”<sup>32)</sup>일까? 자청비가 얻은 오곡 씨앗이 남편의 애정을 잃은 ‘설운애기’, ‘설운 내 며느리’에게 시부모가 허락한 것임을 고려할 때, 오곡을 얻은 자청비는 여전히 시부모의 ‘며느리’이다. 게다가 자청비가 오곡을 가지고 지상에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천상의 며느리로서의 지위 때문었던바, 자청비가 시댁을 떠나 지상에 내려오거나 남편과의 살림을 유지하지 못하고 홀로 살기로 했다고 해서 자청비가 문도령 집안의 며느리라는 지위를 포기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자청비는 여전히 천상의 ‘며느리’이자 문도령의 ‘본처’이며, 그것은 자신이 직접 들었다고 할 수 있는 ‘첩’인 서천꽃발 따님아기에게 빠진 남편에게 소박당한다 하더라도 바뀔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족 관계는 <이달춘 심방 구연본>에 잘 드러난다. 자청비가 홀로 살기로 하고 문도령과 살던 집에서 떠난 후, 뒤늦게 돌아온 문도령이 자청비를 찾는 장면을 보자.

문도령은 집안을 다 찾아도 자청비가 없구나. 옥황에 축수하여 노각줄을 타고 옥황에 올라가 부모님 앞에 모든 이야기를 올리니 부모님이 말씀하되,

“이 불효막심한 놈아. 전처 소박한 죄다. 이제부터는 작은 며느리에게는 가지 말거라.”

31) <이달춘 심방 구연본>, 262면.

32) 오세정, 앞의 글, 280면.

“예. 자청비를 만나게 해 주소서.”  
 “자청비는 세경땅에 오곡씨를 갈아 얻으먹으러 내려갔다.”  
 “그러면 저에게도 오곡 씨를 내어 주소서.”  
 “너에게는 칠곡 씨를 내어주마.”  
 “칠곡씨는 무슨 씨입니까?”  
 “팥, 녹두, 동부, 콩, 메밀, 기장, 피, 일곱 씨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자청비는 여전히 천상의 며느리이자 문도령의 본처라는 사실이다. 자청비가 홀로 살기로 했다고 해서 천상과 자청비, 문도령과 자청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자청비가 천상과 문도령을 ‘버린’ 것은 더더욱 아니다. 자청비의 선택의 의미하는 바는, 며느리와 아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되 다만 홀로 따로 떨어져 사는 ‘별거’였던 것이다.

별거는 제주도의 혼인 제도에서 드문 현상이 아니었다. 축첩이 흔했던 제주도에서, 처와 첩이 한 집에 사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한 울타리 안에 살더라도 ‘안거리’와 ‘밖거리’로 구분되는 별도의 살림채에서 독립적 생활을 영위했던 제주도 사회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일 터이다. 그런데 이 경우, 남편이 첩과 함께 산다 하더라도 명절이나 제사는 따로 사는 본처의 몫이었고, 이 때 첩은 시부모나 본처의 집으로 가서 일을 도와야 했다.<sup>33)</sup> 남편과 별거하는 본처라 하더라도, 본처는 여전히 남편의 아내이자 시가의 며느리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았던 것이다. 자청비의 선택은, 바로 이러한 형태의 별거를 상기시킨다.

한편, 별거는 제주도 본풀이, 특히 마을 神堂의 내력을 풀이하는 당본풀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화소이다. 종종 부부 신경 중 어느 한 신이 상대의 잘못을 이유로 별거를 요구하곤 한다. 저 유명한 <송당 본향당 본풀이>에서 백주는 남편 소천국이 밭 가는 소를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바람 아래로 내려서라’라고 요구하며 ‘살림 분산’, 즉 별거에 돌입한다. 아내가 부정하게도 돼지 고기를 먹었거나 먹으려 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별거하

33) 양영자, 『세시풍속과 전승민요』, 『제주여성 전승문화』, 제주도, 2004, 34면 참조.

는 남성신이 등장하는 당본풀이도 적지 않다. 그런데 제주도 당본풀이에서 부부신이 별거에 이른다고 해서, 그 두 신의 부부 관계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을 의례에서 따로 좌정하던 두 신을 함께 모시고 제향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민들은 그 두 신을 부부로 믿는다. 좌정처를 달리하여 별거를 할 뿐, 그 두 신은 여전히 부부신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경본풀이> 서사의 의문점 중의 하나였던 문제, 즉 애정을 실현하기까지의 곡진한 사연에도 불구하고 자청비가 문도령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홀로 오곡 씨를 가지고 세경땅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 자청비의 애정 상대였던 문도령은 천상의 지위를 얻기 위한 매개였고, 자청비가 탐색하고 추구했던 것은 지상 존재가 갖추지 못한, 혹은 지상에 없는 천상만의 능력이었다. 천상의 ‘큰며느리’가 됨으로써 그 능력에 접하게 된 자청비는 천상의 오곡 씨앗, 즉 ‘곡종’을 획득하여 지상으로 귀환한다. 지상의 존재가 천상의 가치를 탐색하고 획득하여 지상으로 귀환하는 이야기, 이것이 곧 자청비와 문도령의 애정담과 그 ‘낮선’ 결말이 의미하는 바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청비의 결연과 별거라는 표층적 서사는, 지상적 존재로서 천상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곡종’으로 상징되는 천상의 산물을 획득하여 지상으로 귀환한 세경신의 내력을 풀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청비는, 천상이라는 초월적 외부의 힘을 욕망하고 그것을 획득하여 이제 그것을 내부에 전래할 수 있는 존재다. 자청비의 위업은 바로 이 지점에서 확인되며, 바로 이 위업으로 인해 자청비는 세경으로 모셔지는 것이다. 지상의 존재이되 천상의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신격, 그것이 바로 ‘세경 자청비’의 신적 위상이라 하겠다.

### 3. 자청비·정수남 서사의 신화적 의미

주지하다시피 <세경본풀이> 서사의 주인공은 자청비이고, <세경본풀이>는 자청비가 ‘세경’이라는 농경신으로 좌정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세경본풀이>에서 세경으로 좌정하는 인물은 자청비만이 아니다. 이본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상세경, 중세경, 하세경, 세경할망, 세경할오방, 세경테우리 등 ‘세경’으로 포괄되는 다양한 신격들이 존재하며, 본풀이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러한 신격으로 좌정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수남이라는 인물이다.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은 자청비를 겁탈하려다 살해당하고 다시 자청비에 의해 살아나는 인물인데, 정수남은 ‘테우리’, 즉 마소를 돌보는 牧者의 신으로, 이본에 따라 ‘하세경’, ‘세경 장남’, ‘세경 테우리’ 등의 명칭으로 좌정한다. 즉, 정수남은 목축의 신으로서 ‘세경’이라는 농경신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자청비를 겁탈하려다가 자청비에게 살해당한 인물이, 자청비에 의해 다시 살아나고 심지어 신직을 받기까지 하는 서사의 전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녹록지 않다.

이러한 서사적 의문점과 더불어, 목축의 신이 농경신 체계의 일부를 이루는 것 또한 생산 문화라는 측면에서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농경과 목축은 둘 다 대지를 필요로 하는 생산 형태이다. 농경을 위해서는 씨를 뿌려 작물을 키울 대지가 필요하고, 목축을 위해서도 가축을 풀어놓아 키울 대지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농경과 목축은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 상호 경쟁적인 생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축의 신이 농경신 체계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최근의 한 연구는 이를 정수남으로 대표되는 목축 문화가 자청비의 주도로 농경적 목축 문화로 재편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관계를 버리고 정수남을 선택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자청비에 의해 농경문화가 시작됨으로써 정수남으로 대표되는 목축문화가 육류를 제공하기 위한 생산 양식에서 농경을 위한 가축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 양식으로 질적 변환을 이루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sup>35)</sup> <세경본풀이>

34) 제주도의 전통적 목축법은 방목이다. 이 때문에 마소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잦았다. 이를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방법이 고안되기도 했으나, 마소들이 울타리에 부딪혀 죽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울타리를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하기도 한다. 울타리 치기와 허물기의 문제는, 농경과 목축의 충돌 양상을 잘 보여준다. 제주 목축의 실제에 대해서는 김일우, 『조선시대 탐라 지역의 우마 사육』, 『사학연구』 78, 2005 참조.

35) 오세정, 앞의 글, 282~283면 참조. 이에 따르면, “정수남이의 죽음과 회생은 생산양식과 문화의 질적 변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 생산 문화의 통시적 역사를 그려내고 있다고 보는 셈이다.

이러한 견해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자청비와 정수남의 좌절을 자청비가 주도적으로 정수남을 선택하여 이루어진 남녀 관계로 파악한다는<sup>36)</sup> 것이다. 하지만 본풀이 서사에서 자청비와 정수남의 관계는 죽음 이전이든 재생 이후든 시종일관 주인-하인 관계일 뿐, 부부나 결연 등의 남녀 관계가 아니다. 게다가 자청비는 “문도령으로 표상되는 천상 가치를 포기하고 정수남 이와 관련된 지상의 가치를 선택”<sup>37)</sup>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 문도령과 별거한 자청비이든 천상을 떠나 지상으로 내려온 자청비이든, 자청비는 천상의 머느리라는 자격과 이를 연으로 획득한 천상의 가치인 곡종을 지니고 지상에 하강한 인물이다. ‘세경’으로 포괄되는 신격으로 문도령도 거론되는 것은, ‘세경신 자청비’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신성성이 문도령으로 대표되는 천상과의 지속적 관계 맺음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자청비가 문도령을 버리고 정수남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경신의 하나로 여전히 문도령이 거론되는 까닭을 설명할 방법이 요원하다.<sup>38)</sup>

이러한 견해의 또다른 맹점은 <세경본풀이> 서사에서 죽음을 전후로 한 정수남의 자질이 변별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위의 논리대로라면, 죽음 이전의 정수남은 육식을 위한 목축을, 죽음 이후의 정수남은 농경을 위한

36) 자청비와 정수남의 관계를 남녀신의 결연으로 보는 견해로는 이를 제주도 당본풀이에 등장하는 ‘백주와 ‘소천국’의 부부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한 연구(권태효,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조현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종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가 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자청비와 백주의 기능적 자질이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백주는 ‘토착남’ 소천국과 결연했던 ‘갈라선’ 외래의 ‘입도녀(入島女)’인 데 비해, 자청비는 ‘외래남’ 문도령과 결연했던 ‘토착녀’이다. 자청비-정수남 짝을 백주-소천국 짝과의 연관 하에 이해하려면, 이러한 차이에 대한 해명이 불가결하다.

37) 오세정, 앞의 글, 282면.

38) 구술 전승의 관습상 행복한 결말을 위해 문도령이 이름뿐인 상세경으로 설정되었다는 견해(같은 글, 280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첫째, ‘행복한 결말’이 구술 전승 장르의 일반적 관습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풀이’의 일반적 관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둘째, 문도령은 자청비가 천상의 곡종을 얻어 세경신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 매개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청비의 ‘천상 남편’이라는 역할을 통해 자청비와 천상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목축을 의미하는 행위나 사건에 연관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풀이 서사의 실체는 어떠한가? 죽음 이전, 정수남은 마소를 끌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며, 자신이 끌고 간 마소를 먹어버린다. 자청비를 피어 산으로 데려갈 때에는 말의 생리에 정통한 테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 정수남으로 대표되는 목축 문화는 운송, 식량, 이동의 수단으로서의 가축을 키우는 생산 양식이다. 육식에 한정되지 않고 여기에서 더 나아간 목축의 의미가 이미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재생 이후는 어떠한가? 정수남은 곡물 씨앗을 가지고 내려온 자청비의 심부름으로 농사를 짓던 이들에게 밥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뿐이다. 자청비에 의한 죽음과 재생이 생산양식과 문화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생각은, 적어도 <세경본풀이> 서사의 문면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정수남은 죽음과 재생을 통해 자질이 바뀐 게 아니라 죽음 이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자질에 적합한 자리를 자청비에게서 부여받았고, 자청비의 하인으로서 세경의 신격 체제 내에 배치되었다. 곡물 종자를 가져와 농경신으로 좌정하게 된 상전에 의해 ‘테우리’였던 하인이 목축의 신이자 농경신 체계의 일부로 좌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자청비와 정수남을 둘러싼 <세경본풀이> 서사의 실제인 것이다.

장르적 속성상 본풀이는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 ‘근본’을 풀어내는 신화적 서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청비와 정수남의 서사를 농경과 목축의 관계를 설명하는 한편 그 관계를 ‘전범화’하는 이야기라고 전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청비와 정수남을 둘러싼 표층적 서사는, 농경과 목축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의미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청비와 하인 정수남 이야기를 목축의 농경에 대한 종속적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해석한 이수자의 견해는<sup>39)</sup> 귀기울일 만하다. 이에 따르면, <세경본풀이>에서의 자청비와 정수남 이야기는 농경신과 목축신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표현함으로써 농업을 위해 마소가 이용되는 것을 비유한 것이며, 농경에는 특히 마소의 힘이 이용되기 때문에 목축신이 힘의 상징인 남종으로 형상화된 것이다.<sup>40)</sup> 자청비와 정수남 이야기를 농경과 목축의 현

39) 이수자, 앞의 글 참조.

재적 관계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본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자청비와 정수남에 얽힌 서사를 통해 구현되는 목축의 의미는 좀더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봉춘 심방 구연본>을 제외하면,<sup>41)</sup>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은 문도령이 떠나고 자청비가 홀로 남은 상황에서 처음 등장한다. 문도령이 돌아 오기만을 속절없이 기다리던 자청비는 문도령을 보았노라는 정수남의 말에 그것이 속임수인 줄도 모르고 문도령을 스스로 찾아 나선다. 지상의 존재인 자청비가 천상 존재인 문도령을 찾아 나서게 된 계기가 태우리었던 정수남에 의해 마련되는 것이다. 탐색과 획득의 계기가 정수남에 의해 마련되는 사건은 다시 한 번 반복된다. 정수남의 겁탈을 피해 그를 죽이고 돌아온 자청비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인을 없애버렸다는 부모의 비난을 받으며 집에서 쫓겨남으로써 다시 탐색의 여정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수남은 자청비가 문도령과 재회하는 계기를 제공한 셈이지만, 정수남은 동시에 자청비와 문도령의 결연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이기도 하다. 정수남의 겁탈이 의도대로 이루어졌다면, 자청비와 문도령의 결연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청비는 자신을 겁탈하려는 정수남을 살해함으로써, 문도령과의 결연 가능성을 유지해 나간다.

그러나 아무리 정수남이 문도령과의 결연에 장애가 된다 한들, 정수남의 살해마저 용인되는 것은 아니었다. 정수남을 죽인 자청비를 나무라는 자청비 부모의 말에서 드러나듯, 정수남은 부모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일을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청비는 부모의 말을 따라 결국 정수남을 살려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정수남이 자청비의 ‘부모’로 상징되는 이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존재였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을 정수남이 목축이라는 생산방식을 의미한다는 전제 위에서 다시 살펴보자. 자청비를 겁탈함으로써 자청비가 문도령과 결연하게 될

40) 위의 글, 284~285면 참조.

41) <박봉춘 심방 구연본>에서 정수남의 출생은 자청비와 관련이 있다. 자청비의 부모는 기차 치성을 약속한 동개나무사가 아닌 다른 질 서개나무사에서 치성을 드리는데, 이로 인해 화가 난 동개나무사 대사는 자청비 부모에게는 흉험(凶險)을 준다. 그 결과, 자청비의 부모는 여자아이인 자청비를, 하녀 정수덕이는 사내아이인 정수남을 낳는다.

가능성을 없애는 정수남은, 자청비가 문도령을 통하여 천상의 힘에 접근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다. 자청비가 가지고 오게 될 것이 천상의 곡종임을 염두에 둔다면, 정수남으로 대표되는 목축은 농경의 풍요를 차단하는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축을 포기할 수는 없다. 자청비의 부모 말대로 그것은 먹고 사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정수남의 재생은, 목축이 부정되지 않고 수용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정수남은 자청비가 천상의 문도령을 찾는 탐색의 계기로 기능한다. 목축을 인정함으로써 제한된 토지를 목축과 나누어 써야 할 때, 농경의 풍요를 위해서는 제한된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청비의 여정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력을 보장하는 초월적인 천상의 힘을 찾아 나서는 탐색과 획득의 여정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자청비를 향한 정수남의 겁탈 시도와 그로 인한 죽음, 자청비에 의한 정수남의 재생, 정수남에 의해 촉발된 자청비의 탐색, 천상의 가치를 획득하고 세경신으로 귀환한 자청비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수남의 좌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서사는, 목축과 농경이라는 서로 다른 생산 방식의 근본적 갈등과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갈등의 조정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목축은 농경의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야기하며, 농경은 목축과의 공존 위에서 그 방법을 찾는다. 자청비는 농경의 풍요를 보장할 천상의 곡종을 가져오는 한편, 정수남이라는 테우리를 농사의 풍요를 관장하는 세경 신격의 하나로 좌정시킴으로써 목축을 농경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자청비와 정수남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농경과 목축의 관계는 제주의 현실과도 일정하게 조응된다. 농경과 목축의 갈등을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가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전통적 농경 방식에는 밭을 갈거나 거름이며 수확물을 운반할 때 가축을 사용하는 수준 이상으로 목축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음이 확인된다. ‘밭ㅂ·ㄴ림’과 ‘바령’이 그 대표적이다. ‘밭ㅂ·ㄴ림’이란 씨앗을 뿌린 후 씨앗이 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흙을 밟아 다지는 것이다. 특히 조처럼 자잘한 종자를 경작할 때에는 씨앗

을 뿌림과 동시에 수십 필의 말을 동원하여 땅바닥을 잘 밟아 주어야 한다.<sup>42)</sup> 주로 화산회토로 이루어진 제주도 토양의 특성 및 바람이 많은 제주도 기후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생산 기술 중의 하나다. ‘섬비(섬피)’나 ‘남테(낭테)’와 같은 도구를 써서 사람이 직접 밟을 밟기도 하나, 마소의 힘을 비는 것이 일반적이다. 밟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 ‘바령(바랑)’도 농경을 위해 마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제주도의 토양은 기름지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휴경이 필수적이었는데,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쉬는 땅에 낮 동안 방목하던 마소를 몰아넣어 분변을 받는다. 그것을 거름삼아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이다.<sup>43)</sup>

유의해야 할 사실은 ‘밟· ㅅ· ㅅ’과 ‘바령’처럼 목축이 농경에 활용될 때에는 테우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테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마소를 모아 맡아 들과 산에서 방목하며 돌보다가, 자신이 돌보는 마소들을 끌고 밟· ㅅ· ㅅ을 해 주거나 ‘바령팻(바령이 행해지는 밟)’에 머물게 한다. 방목하는 거친 마소들을 몰고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테우리가 있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밟에 뿌린 씨앗이 잘 자라나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흙을 잘 다져 주어야만, 그리고 씨앗을 품은 흙이 충분히 비옥해야만 농사의 풍작을 기대할 수 있다. 테우리는 마소를 이용하여 그것을 가능케 해 주는바, 이는 목축이 농경의 풍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다.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이 ‘테우리카·ㅅ·’를 받아먹는 테우리의 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이 寓意하는 ‘근본적으로 농경의 풍요를 방해하나 농경의 풍요에 기여할 수 있는 목축’의 의미가 ‘테우리’라는 구체적 형상에서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농경지를 유린하는, 농경에 적대적인 목축은 이런 방법으로 농경을 풍요롭게 하는 생산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 농경과 목축의 조정된 관계를 보여주는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정수남 서사는 수렵에서 농경으로의, 혹은 육식을 위한 목축에서 농경을 위한 목축으로의 전환이라는 생산 방식의 통시적 변화를 그려내는 신화가 아니다. 그것은, <세경본풀이>가 전승되고

42)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97면.

43) 위의 책, 37~43면 및 122면 참조.

구연되는 공시적인 맥락에서 풍농을 위한 농경과 목축의 바람직한 관계를 농경을 위한 목축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하는 전범적 신화인 것으로 보인다.

#### 4. 풍농(豐農)의 원리와 자청비의 역할

제의적 맥락에서 볼 때 자청비는 농경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격이다. 이는 <세경본풀이> 문면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천상(또는 문도령)을 떠나 세경땅에 내려선 자청비는 정수남을 시켜 농사를 지으러 밭에 나온 사람들에게 가서 밥을 얻어 오게 하는데,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밥을 준 사람들의 밭에는 풍년이 들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밭에는 흉년이 들게 한다.<sup>44)</sup> 일례로 <이달춘 심방 구연본>을 보자.

저기 바라보니 어떤 늙은 부부가 소 아홉 장남 아홉 거느리고 밭을 갈고 있었다.

“정수남아, 저기 밭 가는 데 가서 점심이나 좀 달라고 하여라. 먹고 나서, 씨를 뿌리자꾸나.”

정수남이 가서 말하였다.

“길 가던 사람인데 배가 고파 왔습니다. 점심이나 있거든 조금 주소서.”

“그리 하소. 우리 두 늙은이는 얼마 먹지 못하니, 많이 들고 가소.”

그리하여 자청비와 정수남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어준 점심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나서 자청비는 정수남과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정수남아, 너는 소를 끌고 밭을 갈거라. 나는 씨를 뿌리마. 내가 씨를 뿌리면 너는 썩비질을 하거라.”

씨를 뿌리면서, 자청비는 기원하였다.

“가라지도 나지 않게 하소서. 쭉정어도 되지 않게 하소서. 꺾부기도 되지 않게 하소서. 말라죽지 않게 하소서.”<sup>45)</sup>

44) 이러한 삽화가 없는 이본은 <박봉춘 심방 구연본> 뿐이다.

잡초도 나지 않기를, 곡식이 병충해 없이 잘 여물기를, 말라 죽지도 않기를 기원한 자청비는 부부에게 ‘닷말지기 밭에 다섯 바리 곡식이 나도록 씨를 뿌렸’노라고 말한다. 세경으로 좌정하고자 내려온 자청비가 행한 것은 ‘점심밥’을 받아 먹고 ‘닷말지기 밭에 다섯 바리 곡식’이 나도록 풍년이 들게 씨를 뿌린 것이다. 자청비가 세경으로 모셔질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농경의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자청비의 능력 때문이다.<sup>45)</sup> 본풀이는 이런 맥락에서 자청비의 세경으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보장한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 세경으로 좌정하기까지의 자청비의 내력이 그것을 설명한다. 앞에서 살폈듯 <세경본풀이> 서사의 대강을 이루는 자청비와 문도령의 애정담 이면에는 초월적 천상과 지상 사이의 관계가, 자청비와 정수남의 사연 이면에는 농경과 목축의 관계가 놓여 있다. 결국 <세경본풀이>의 주요 서사는 천상과 지상의 관계를 통해, 또 농경과 목축의 관계를 통해 ‘세경 자청비’의 권위를 보증하는 우의적 서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청비는 천상의 머느리가 되어 천상의 곡물을 지상으로 가지고 내려왔으며, 농경을 방해하는 목축이라는 생산 방식을 농경에 기여하도록 배치하였다. 요컨대, 자청비가 세경으로 모셔질 수 있는 것은 자청비가 천상에서 곡종을 가져오고 또 농경을 방해하는 목축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업적을 세웠기 때문이다. 자청비의 이러한 내력이, 곧 풍요를 가져오는 자청비의 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본풀이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자청비와 문도령, 자청비와 정수남의 이야기는 ‘농경의 풍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본풀이 전승 집단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청비와 문도령, 자청비와 정수남의 사연으로 이루어진 본풀이 서사 뒤에 자리하고 있는 심층적 의미는, ‘풍농’의 원리에 대한 본풀이 전승 집단의 신화적 사유에 다름아닌 것이다.<sup>47)</sup>

45) <이달춘 심방 구연본>, 263면.

46) 세경 자청비는 풍요 뿐만 아니라 흥희도 내린다. 점심을 대접하지 않은 이들의 밭에 풍년이 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47) <세경본풀이>는 풍농신의 내력을 통해 풍농의 유래를 밝히는 풍농 신화이지, 곡물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등장했는지를 밝히는 곡물 기원 신화나 작물의 경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히는 농경 기원 신화는 아니다. 자청비가 내려온 세경땅에서는 이미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청비가 가져온 천상의 곡종이 세경땅 ‘최초’의 곡물 종자는 아니었다는 뜻이다. 신

<세경본풀이>에 구축되어 있는 풍농에 대한 신화적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풍요는 ‘천상’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다. 농사의 풍요는 누구에게 기원하는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세경신 자청비이다. 그렇다면 자청비는 어떻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자청비는 씨앗을 가지고 온다. 그 씨앗이 어째서 풍요를 보장하는가? 자청비가 가져다 주는 씨앗은 천상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자청비가 천상의 씨앗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자청비는 천상의 며느리로서 천상의 오곡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도령과 연을 맺어 천상의 며느리가 되었다가 지상으로 귀환한 자청비의 사연은, 지상의 풍요는 천상에서 비롯된다는 전승 집단의 사유가 신화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sup>48)</sup>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청비는 천상의 풍요를 지상에 전달하는 매개자이지, 그 자신이 풍요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절대자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세경본풀이> 서사를 농경 원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자청비를 농경 원리의 구현자로 본 여러 선행 연구는 비판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sup>49)</sup> 가령, 문도령과 자청비의 애정담은 암수가 결합하여 열매를 맺는 식물 생식의 원리에 맞닿아 있는 것인가?<sup>50)</sup> 남녀 결합에 의한 ‘출산’ 화소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문도령과 자청비의 애정담을 이

---

화 전승의 실재를 감안할 때 동일한 신화가 곡물 기원 신화, 농경 기원 신화, 풍농 신화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경우가 많지만, 이 세 유형의 신화적 주제는 명확히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48) 최근의 채록 자료인 <이용옥 심방 구연본>과 <양창보 심방 구연본>은 자청비가 ‘염제실롱씨’, 즉 ‘염제 신농씨’에게 가서 받아왔다고 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경신의 위계는 상세경은 염제신농씨, 중세경은 문왕상 문도령, 하세경은 자청비, 세경장남(세경머슴)은 정수남이라고 제시된다. 이는 <이용옥 심방 구연본>과 <양창보 심방 구연본>이 유교적 관념을 수용하여 풍요의 곡종의 기원처를 천상 아닌 염제 신농씨로 설정하고, 전에 없던 염제 신농씨 때문에 문도령과 자청비, 정수남의 위계를 하나씩 낮추어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풍요가 비롯되는 초월적 힘의 원천을 농경을 백성에게 가르쳤다는 중국의 신농씨에게서 찾는다는 점, 그리고 그 신농씨를 ‘상세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여러 이본에서 문도령이 ‘상세경’으로 제시되는 까닭은 그가 곡종의 기원처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초월적 외부가 천상 아닌 염제신농씨로 변용될 수 있음을 볼 때, <세경본풀이>의 ‘천상’은 그다지 견고한 신화적 형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신화 세계에서 초월적 외부 관념의 존재 양상과 그 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49) 본고의 각주 8), 9), 10) 및 11) 참조.

50) 이수자, 앞의 글 참조.

런 시각에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농경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세석본풀이>에서 당금애기의 출산이 필수적이었던 것<sup>51)</sup>과 대조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자청비는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自動地生이라는 대지의 농경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가?<sup>52)</sup> 대지의 출산은 씨앗을 품은 다음에야 가능한 것이므로, 대지의 생산 능력의 특성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한다면 씨앗마저도 대지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세경본풀이>에서 풍요의 근원이 되는 곡종은 자청비의 것이 아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의 공간에서 자청비의 내력을 풀이하는 <세경본풀이>가 거듭 구연되는 것은 천상에서 곡종을 가져온 신화적 태초의 사건을 현재에 재현하는 의미가 있다. 이는 천상의 곡종을 가져왔다는 태초의 사건 이후에도 곡종의 출처는 천상일 뿐, 자청비가 그 곡종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승 집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복하자면, 자청비는 풍요의 전달자이지, 직접적인 생산자가 아니다.

게다가 제주도의 생산지리적 여건상 풍농의 신인 자청비가 대지 자체의 비유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땅이 생명의 씨앗을 품어 성장시키고 세상에 내어놓는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제주도의 토지는 무척이나 척박하여 생산력이 극히 낮았다. 풍요의 신격인 자청비의 신화적 비유 대상이 비옥하지 못한 대지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출산하는 대지 자체에서 풍요를 기원하기 어려우니, 풍요에 대한 기원은 다른 곳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 척박한 땅에 풍농을 가져다 주는 신격, 그것은 바로 천상의 곡종을 가져다 주는, 즉 천상에서 유래하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세경 자청비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경본풀이>가 죽음과 재생이 순환되는 농경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자. 이러한 해석에서 주된 분석 대상이 되는 서사적 삽화는 자청비에 의한, 또는 자청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남성 인물(정수남, 문도령)의 죽음과 자청비에 의한 그들의 재생이다. 자청비는 죽음에서 삶을 되살리는 초자연적 능력을 지녔고, 이는 자청비에게 곡물이 땅

51) 서대석, 『帝釋本풀이 研究』, 『韓國巫歌의 研究』, 문학사상사, 1992(초판:1980) 참조.

52) 오세정, 앞의 글 참조.

에 묻혀 죽음을 맞았다가 되살아나는 농경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주재하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sup>53)</sup>

먼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세경본풀이>에서 과연 자청비가 죽은 자를 살리는 초자연적 능력을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서천꽃밭의 생명꽃을 이용하여 정수남이나 문도령을 되살린다. 그런데 생명을 되살리는 생명꽃은 자청비의 것이 아니라, 바로 서천꽃밭 주인의 것이다. 정수남이나 문도령을 살리기 위한 꽃밭의 꽃은 ‘몰래’ 획득되며, 그것조차도 자청비가 아닌 ‘자청도령’의 모습으로 남복(男服)했을 때에야 가능했다. 그렇기에 생명을 되살리는 능력은 자청비의 능력이 아니라, ‘자청도령’이 서천꽃밭의 사위라는 지위를 획득했을 때 비로소 넘보기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서천꽃밭의 꽃을 몰래 꺾어오지 않으면 발휘할 수 없는, 이 위태위태한 능력을 자청비의 능력이라 하기는 어렵다.

서천꽃밭의 꽃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화소는 제주도의 다른 본풀이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이공본풀이>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은 원강아미는 아들이 가져온 꽃으로 되살아난다. <할망본풀이>에서 잘 드러나듯 서천꽃밭의 꽃이 인간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고는 제주도 신화 세계의 보편적 신화 관념인바, 서천꽃밭의 꽃을 이용하여 죽은 정수남이나 문도령을 살려낸다는 <세경본풀이> 삽화는 ‘서천꽃밭 생명꽃’이라는 화소가 활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죽음과 재생 삽화에서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죽음과 재생을 통해 인물의 관계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풍농을 위한 천상과의 결연을 방해한 정수남은 죽고, 되살아난 정수남은 풍농에 도움이 되도록 마소를 운용할 수 있는 테우리가 된다. 자청비의 남편이었던 문도령은 되살아나 서천꽃밭의 사위가 되면서 천상의 아들이자 서천꽃밭의 사위가 된다. 별개의 공간이었던 천상과 서천꽃밭이 혼인 관계로 엮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경본풀이>의 죽음과 재생은 자청비가 구현하는 농경의 원리라기보다, 자청비에 의해 이루어진 세계의 재조정 또는 재배치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53) 강진옥, 앞의 글, 335면 및 338면 참조.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복하자면, <세경본풀이>는 ‘농경의 풍요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신화적 답변이다. <세경본풀이>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풍요는 천상이라는 초월적 공간에서 온다. 그래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인간들은 세경 자청비에게 풍요를 기원한다. 자청비는 천상의 곡종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것은 농사의 풍요를 보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농경의 풍요는 천상의 며느리라는 지위를 획득한 자청비를 매개로 지상에 도래하는, 천상이라는 초월적 공간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아울러 <세경본풀이>는 테우리로서 마블림제 등의 의례에서 제향되는 정수남을 자청비와 함께 노래함으로써, 세경땅의 풍요를 위해서는 천상에서 곡종을 가져다 줄 자청비와 함께 농사에 기여하는 ‘테우리 정수남’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농경의 풍요를 위한 현실적 방안과 관련된 것이다. 목축은 대지를 두고 농경과 대립할 수밖에 없지만, 농경을 위해 동원될 수도 있다. 천상과의 결합, 즉 풍농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방해하던 테우리 정수남을 죽였다가 되살려 ‘세경 테우리’로 좌정케 한 <세경본풀이>는, 정수남으로 표현되는 테우리들이 농경을 위해 마소를 부릴 수 있음을(혹은 그래야 함을) 보여준다. 제주도에서 주곡으로 경작된 대표적 작물은 보리와 조였고, 척박한 토양에서 그 산출량을 늘리기 위한 경작법으로 밭보·ㄹ림이며 바령 등 방목하던 마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세경본풀이>는 이러한 현실에 조응하여, ‘테우리 정수남’을 하인으로 부리며 천상의 곡종을 가져다 주는 자청비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는 신화인 셈이다. 요컨대 <세경본풀이>는, 풍농의 원리를 설명함과 동시에 풍농을 위한 전범으로 기능하는 신화라 하겠다.

## 5. 맺음말

본고는 <세경본풀이> 서사의 핵심을 이루는 자청비와 문도령, 자청비와 정수남 이야기가 세경신의 직능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따져본 것이다.

<세경본풀이>의 애정담은 세경신의 직능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자청비와 문도령에 대한 이야기는 풍농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천상이라는 초월적 공간에서 유래하는 풍농이 어떻게 우리 인간 세상에 도래하게 되는지를 우의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세경본풀이>에 등장하는 자청비와 정수남 이야기는 풍농을 전제로 목축이 농경에 이용되는 현실과 또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신화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여기에서 풍농의 원리를 설명하고 풍농을 위한 규범을 제시하는 신화로서 <세경본풀이>를 이해할 수 있다. <세경본풀이>는 비단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에 국한되지 않고 潛嫂들의 어업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 등에서 구연되기도 하는데, 이 또한 ‘풍농의 유래자 자청비’라는 관념이 생산 방식의 경계를 넘어서서 향유되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것은, <세경본풀이>가 무속적 의례 공간에서 구연되는 신화라고 해서 여기에서의 풍요의 원리가 오랜 연원을 지니는 원초적인 신화적 사유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생산, 물고, 장적, 호적 모두를 관장하는 마을신을 제향 대상으로 하는 당신앙에 기반하는 신화적 사유 체계에서 풍요의 원리는 <세경본풀이>의 그것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그 차이와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 신화의 입체적 사유 체계에 접근하기 이전에, 선불리 <세경본풀이>의 풍농 원리를 제주도의 원형적인 신화적 사유 방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음을 확인해 두고 싶다. 설익은 가설이나마 미리 제시해 보자면, 초월적 공간을 ‘천상’으로 구체화하는 <세경본풀이>의 관념은 조상들의 사후 공간이나 해양 타계를 초월적 공간으로 상징하는 신화적 관념에 비할 때 신화사적으로 후대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세경본풀이>는 조 농사와 보리 농사가 위주였던 제주도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된 풍농 신화이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그 맥락 위에서 향유된 <세경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기능을 살피려 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세경본풀이>에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한 것이다.<sup>54)</sup> 지상과 천상의 관계 및 농경과 목축의 관계를 조정하고 재배치함으

로써 지상에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 된 자청비 이야기에서, 자식 없는 혼인, 혼인 이후의 별거, 위장 결혼, 파혼, 정혼, 축첩 등 혼인과 관련된 다양한 양상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청비의 성혼에는 媿家가 중시되는 반면 자청도령의 혼인에는 처가가 중시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본풀이 서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청비의 친가, 즉 자청비 부모의 역할이 희미해지는 것은 그냥 보아넘길 수 있는 문제인가?

천상의 자제와 인연을 맺어 그곳의 곡종을 가져온 문화 영웅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점, <세경본풀이>의 자청비 이야기가 종종 여성 화자에 의해 설화로 구연되는 여성 취향의 이야기라는 점 등은 사회학적인 젠더의 시각에서 <세경본풀이>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더 강화한다. 본고에서는 자청비의 별거를 제주 사회의 혼인 제도와 관련하여 지적하는 데 그쳤으나, 풍농신 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의 의미는 상기의 문제들을 사회적 性 관념 및 혼인 제도와의 관련 하에서 고찰할 때 그 의미가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세경본풀이>를 검토한 연구 성과가 이미 다양하다.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 풍농신 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의 의미를 더욱 다채롭고 심도있게 읽어 낼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54) <세경본풀이>의 서사를 혼인 거주의 시각에서 접근한 선행 연구로 김화경, 앞의 글, 68~70면을 참조할 것.

## 참고문헌

### 1. 자료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290면.  
赤松智城·秋葉隆(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1991, 1~394면.  
제주대학교 한국학 협동과정, 『양장보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10, 1~395면.  
제주대학교 한국학 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1~463면.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1~922면.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개정판), 각, 2007, 1~859면.

### 2. 논저

-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 한국구비문학회, 2005, 307~345면.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1~334면.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징」, 『한국민속학』 31, 민속학회, 1999, 53~76면.  
권태효,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77~110면.  
길태숙, 「<구렁덩덩신선비>, <세경본풀이>, <발매기노래>에 나타난 ‘남편찾기’와 ‘결합’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16, 열상고전연구회, 2002, 281~312면.  
김일우, 「조선시대 탐라 지역의 우마 사육」, 『사학연구』 78, 2005, 79~109면.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53~74면.  
김화경, 「세경 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 8권3호, 일지사, 1982, 56~78면.  
박경신, 「제주도 巫俗神話의 몇 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283~303면.  
서대석, 『韓國巫歌의 연구』, 문학사상사, 1992(초판:1980), 1~420면.  
양영자, 「세시풍속과 전승민요」, 『제주여성 전승문화』, 제주도, 2004, 16~100면.  
오세정, 「유화와 차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남성 인물과의 대립체계를

-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259~290면.
-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 민속학회, 1993, 267~300면.
- 정인혁, 「〈세경본풀이〉의 세계관 재고-‘中’ 세경 자칭비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343~373면.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1~506면.
-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455~482면.
- 최원오,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에 나타난 남녀애정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학회, 2002, 3~34면.

## The Mythical Idea about Fertility and the Meaning of

### <Segyeong-bonpuri>

Jeong, Ji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mythical meaning of <Segyeong-bonpuri (세경본풀이)> which is the shaman-song performed at ritual to pray for fertility in Jeju island.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 the key stories of the <Segyeong-bonpuri(세경본풀이)> which are about ‘Jacheongbi(자청비)’ and ‘Mundoryeong(문도령)’, and about ‘Jacheongbi’ and ‘Jeongsunam(정수남)’. Though these stories may look isolated from ritual function of <Segyeong-bonpuri>, they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ritual in terms of showing the mythological principle of fertility and mythical ideal type.

Firstly, in the love story of *Jacheongbi* and *Mundoryeong*, *Jacheongbi* from the ground got married with *Mundoryeong* from the heaven and bring the seed of heaven to the ground. In the other side of this story, there is a mythical idea which is that the root of fertility is in the heaven and the seeds from heaven guarantee of richness on the ground. Nextly, the story of *Jacheongbi* and *Jeongsunam* shows the relation between the garzing represented by *Jeongsunam* and the richness of agriculture. The grazing disturbs the richness of agriculture by capturing cultivated land. However, it becomes chances exploring richness and fertility not on the ground but in the heaven.

*Jacheongbi* is described for the character brings richness in the heaven to the ground in the love story with *Mundoryeong*. And in the story with *Jeongsunam*, She functions as the character relocates grazing being good for agriculture from being bad for richness. In short, <Segyeong-bonpuri> is the myth about the goddess of fertility and richness. She is not only bringing richness in the heaven to the ground but also relocating grazing being bad for agricultural richness to being good for it. The connection between the narrative and the ritual function of

<Segyeong-bonpuri> has found at this point.

Keywords: myth, <Segyeong-bonpuri(세경본풀이)>, love story, *Jaebeongbi*,  
mythical idea about fertility, the heaven, seeds, agriculture, grazing,  
ideal type

접수일자: 2013. 8. 31 심사기간: 2013. 8. 31~2013. 11. 20 게재결정: 2013. 11. 20
---